

굴욕 논란 일으킨 '盧 보고' ... 서상기의 '착각'이나 '왜곡'이나

〈국회정보위원장〉



국회에 온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회의록 내용의 해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에 드러난 '막전막후'

김계관의 복핵·6자회담에 관한 보고로 밝혀져 정상회담 정례화 놓고 미묘한 신경전 벌어지기도

국가정보원이 24일 기밀해제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미묘한 신경전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보고' 왜곡 논란-김계관의 복핵·6자회담 보고인 듯-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계관 당시 외무성 부상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10·3 공동성명 합의 경과를 보고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 부상을 불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보고'라고 말한 대목은 전후 맥락상 김계관 부상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한 '보고'를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문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대화록에는 "대화화가 아니고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며 "제 말이 조급이라도 과장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도 이 부분을 두고 '보고'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발췌본만 보고 실제 상황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盧 "평화체제 협상 개시되면 남북이 정상 만날 수도"'-노 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전체제 종식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그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며 북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당사자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본게서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

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눈 되도록이면 가서 판 고. 판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안그러면 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된다. 한 줄 들어 있으면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라고 말했다.

◇'회담 정례화-김 위원장 담방 미묘한 신경전'-노 전 대통령은 오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회담 정례화 문제도 내야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시로 보자고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양 국가가 아닌 이상 한민족끼리니까 정례화, 정례화하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일 없으면 불일

리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김대중 정부' 인사들은 김 위원장이 담방 약속을 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습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활동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김 위원장이 담방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와서 서로 왕래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내 앞에서 담방 약속을 했다"면서 "담방하지 않은 것을 '면피'하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LL, 젊은이들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우회적 비판 해석 문재인 "NLL 젊은이들 피·죽음으로 지킨 역사 끝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전날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밝혀진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해석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을 왜곡해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

음없이 없는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라면서 "NLL을 수많은 젊은이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에 건넨 문건 기밀자료 아냐"

盧측 "남북경제협력 아이টে에 대한 자료" DJ측 "김 위원장이 서울 담방 약속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25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국가기밀이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밀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

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이টে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북측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의의 작성을 위해서도 양측이 함께 참고할 종합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제 남북 합의문도 분야별로 내용이 세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가 어떻게 비밀문서가 될 수 있느냐"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진출했을 때 서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 위원장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서울 담방 약속에 대해 해석을 달

땅끝해남에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여행

땅끝 해남에서 제주까지 새로운 뱃길이 열렸습니다.

해남우수영 ↔ 제주간 쾌속선 운항

운항시간 (2시간 30분)
 해남우수영항 → 제주항간 : 출발 14:40 (도착 17:10)
 제주항 → 해남우수영항간 : 출발 09:00 (도착 11:30)
 정員 574명 (승용차기준 76대)

해남에 오셨으면 꼭 드셔야 할 추천 음식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우항리공룡박물관

대흥사

순호섬

땅끝바라 수영대회

제4회 조오련배
Thangkulbarat swimming contest

2013년 7월 27일(토) ▶ 28일(일) 2일간
땅끝순호해변(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

2013년 7월 27일(토) ▶ 28일(일) 2일간
전라남도 해남군 순호해수욕장